



# 박·태·환 가자! 4관왕

## 200m이어 400m 자유형 금 물살...100m·1500m도 금빛 꿈

**박태환**(21·단국대)이 남자 자유형 400m에서 한국 신기록이자 올해 세계 최고 기록으로 우승하면서 아시안게임 2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런 상승세라면 다소 힘들 것으로 예상했던 자유형 100m과 1500m 금메달도 가능할 것 같다.

박태환은 16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중국 광저우 아오터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1초53로 가장 먼저 레이스를 끝내 2006년 도하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금메달을 땀다.

자신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을 탈 때 세운 한국 기록(3분41초86)을 0.33초 줄였고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열린 2010 팬퍼시픽선수권대회 때 기록한 올해 세계 랭킹 1위 기록(3분44초73)도 다시 썼다.

지난 14일 자유형 200m에서 1분44초80의 아시아 신기록으로 2006년 도하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박태환은 자유형 400m에서도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이번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을 차지했다.

박태환의 맞수인 중국의 쑨양은 3분42초47, 정민은 3분49초15로 각각 2, 3위로 밀렸다.

전날 계영 800m에서 한국의 동메달 획득에 힘을 보탰던 박태환은 이날 금메달을 추가하며 여세를 몰아 4관왕에 도전한다. 17일

에는 자유형 100m에, 18일에는 1500m에 나선다.

관심은 박태환의 자유형 1500m 2연패 달성 여부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박태환의 자유형 1500m 금메달 획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박태환은 2006년 도하대회 자유형 1500m에서 14분55초03의 아시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냈다. 그러나 이후 베이징 올림픽, 로마세계선수권 등에서 박태환의 1500m 기록은 뒷걸음질만 쳤다.

그 사이 박태환의 '라이벌' 장민(23)과 쑨양(19·이상 중국)은 1500m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자유형 200m과 400m에서 완벽한 레이스

**국가별 메달 순위**  
(16일 20시 현재, 한국시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69	25	26
2	한국	21	15	23
3	일본	15	31	27
4	북한	3	6	9
5	대만	3	5	10

를 펼친 박태환의 자유형 100m 금메달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박태환은 자유형 200m에서 반응속도가 0.67초로 가장 빨랐다. 모든 구간에서의 랩타임도 26초대로 좋았다.

4년 전 도하대회 자유형 100m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단거리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인 박태환의 100m 금메달 획득이 꿈만은 아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연합뉴스

## 한국유도 일곱번째 금사냥 실패

### 女무제한급 김나영 은메달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펼친 한국과 '종주국' 일본의 광활한 금메달 경쟁은 일본의 근소한 관점승으로 끝났다.

한국은 16일 광저우 화궁체육관에서 치러진 금빛 소식을 전하지 못했지만 여자부 무

제한급에서 김나영(대전서구청·사천)이 은메달을 따내고, '한판승 사나이' 최민호(한국마사회)과 정정연(포항시청)이 동메달 2개를 잡았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를 따내며 총 14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반면 전날까지 한국과 동률을 이뤘던 일본은 이날 남자 무제한



급에서 금메달을 추가해 금메달 7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 등 총 15개의 메달을 확보해 근소하게 한국을 누르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이날 여자 무제한급 결승에 나선 김나영에게 금빛 소식을 기대했지만 류관위안(중국)에게 지도 2개를 내주며

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8강에서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라소드 소비로프(우즈베키스탄)에게 절판패를 당한 최민호는 동메달 결정전에서 예르케불란 코사예프(카자흐스탄)를 발뒤축 걸기 한판승으로 따돌렸다.

여자부 48kg급 준결승에 나선 정정연(포항시청)은 심판들의 석연찮은 판정으로 중국선수에게 저 아쉬움을 남겼다.

정정연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북한의 황류옥을 상대로 발다리걸기 한판승을 거두고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 사이클 남자 단체 추발 2연패

### 조호성·황인혁·장선재·박선호 금빛 질주

#### 장선재 2연속 2관왕 위업



한국 사이클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4km 단체추발 2연패를 달성했다.

조호성(36·서울시청)과 황인혁(22·금산군청), 장선재(26·대한지적공사), 박선호(26·서울시청)로 이뤄진 남자 대표팀은 16일 광저우대학타운 벨로드롬에서 벌어진 남자 4km 단체추발 최종 결승전에서 4분07초872만에 결승선을 끊어 홍콩(4분10초859)을 제치고 우승했다.

중국 동메달 결정전에서 4분11초349의 기록으로 이란을 꺾고 3위를 차지했다.

4년 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도 같은 종목에서 우승했던 한국은 이로써 이 종목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다. 특히 장선재는 14일 개인추발에서 종목 2연패를 달성한 데 이어 단체추발에서도 정상에 오르면서 2관왕 2연패의 위업을 쌓았다. 한국 사이클 선수 중 두 종목에서 연속 금메달을 따낸 것은 장

선재가 처음이다.

한편, 이어 열린 남자 포인트 레이스에서는 장선재와 조호성이 나란히 결승에 진출했다.

장선재는 예선 1조 경기에서 메인 그룹을 무려 두 바퀴나 앞서면서 40점을 획득, 종합 48점을 얻어 조 1위로 결승에 올랐다. 조호성 역시 두 번째 스프린트에서 1위, 4번째 스프린트에서 3위에 올라 8점으로 조 3위에 올라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장선재와 조호성은 17일 낮 벌어지는 결승전에서 한국 사이클의 세 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

그러나 이어 벌어진 남자 경륜 2라운드에서는 최래선(창원경륜공단)과 전원규(상무)가 나란히 조 4위에 머물러 조 3위까지 올라가는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또 여자 스프린트의 김원경(20·대구체육회)도 준결승에서 귀양(중국)에 밀려 최종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김원경은 17일 오전 열리는 3~4위전에서 동메달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 황선옥 개인전서 금 스트라이크



황선옥(22·평택시청)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메달밭' 한국 여자 불링에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황선옥은 16일 광저우 텐허 불링홀에서 열린 여자 개인전에서 6게임 합계 1395점(평균 232.5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4년 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는 3인조에서 금메달을 딴 황선옥은 두 대회 연속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선옥은 작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인조와 5인조에서 2관왕에 오르는 등 최진아(26·대전광역시청)와 함께 한국 여자 불링을 이끌고 있다.

오전과 오후 A조와 B조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황선옥은 A조에 속해 먼저 경기를 마쳤다. A조 1위를 차지한 황선옥은 이날 오후 B조 경기를 지켜보다가 자신의 점수를 넘는 선수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

한 뒤 동료와 기쁨을 나눴다.

황선옥은 첫번째와 두번째 경기에서 219점과 237점을 올리면서 기본 통계 시작했다. 상승세를 탄 황선옥은 3번째 경기에서 9개의 스트라이크를 쏟아내며 259점을 작성했고 4번째 경기에서도 240점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하지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조금 주춤했지만 215점(5게임)과 225점(6경기)으로 선방했다. 4번째 게임에서 퍼펙트(300점)를 작성한 윤 린 자이 사이나(싱가포르)가 6번째 경기에서 153점으로 무너진 것과 비교했다.

종은 점수로 경기를 끝낸 황선옥은 B조의 최진아와 강혜은의 플레이를 지켜보며 응원했다. B조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코 사룬이 B조 5 경기를 치른 뒤 1천135점을 얻으며 무섭게 추격했지만 6경기에서 183점을 얻는데 그치면서 황선옥의 금메달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 男핸드볼 4년전 편파 판정 대설욕

### 쿠웨이트 꺾고 4강 예약



한국 남자핸드볼이 쿠웨이트를 꺾고 4강 진출을 사실상 예약했다.

한국은 16일 중국 광저우 광궁체육관에서 열린 광저우 아시안게임 핸드볼 남자 조별리그 B조 3차전 쿠웨이트와 경기에서 31:29로 이겼다.

3전 전승을 거둔 한국은 남은 이란과 경기에서 큰 점수 차로 지지 않으면 상위 2개국 이 출전하는 준결승 진출에 문제가 없다.

한국은 특히 2006년 도하 대회에서 쿠웨이트 탓에 6회 연속 금메달의 꿈을 놓친 적이 있어 이날 승리의 의미가 남달랐다. 당시 한

국은 아시아핸드볼연맹(AHF)의 쿠웨이트 출신 회장 셰이크 아메드 알 파드 알사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심판들의 농간에 휘둘러 우승은 커녕 4위로 밀려났다.

쿠웨이트와 조별리그 최종전에는 카타르 출신 심판들이 들어와 26:32로 졌고 카타르와 준결승에서는 쿠웨이트 심판 두 명이 농간을 부린 탓에 결승에도 오르지 못했다.

알사바 회장이 견재한 탓에 이번 대회를 앞두고도 조영신(상무) 대표팀 감독은 "경기 외적인 부분이 어떻게 변수가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으나 이번에는 실력으로 도하대회 우승팀 쿠웨이트의 코를 납작하게 눌렀다. 쿠웨이트는 2개로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내몰렸다.

/연합뉴스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필**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